

언더도그효과

깔려 있는 개 신세'를 뜻하는 언더도그는 약세에 있는 특정후보에게 유권자들의 동정심이 작용해 그에 대한 지지가 쏠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우세한 후보에게 지지가 더 몰리는 '밴드왜건(bandwagon) 효과' 반대되는 개념.

두 효과는 서로 상반되지만 실제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1년 미국의 한 전문가는 젊은 사람이나 직장인들은 밴드왜건 효과에, 그리고 여성과 자유주의자, 저임금층 등은 언더도그 효과에 각각 노출돼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일 전에는 여론조사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다.

신구간

'새로움과 묵은 것의 사이'란 뜻으로 제주도의 전통적 이사철을 말한다.

24절기중 대한(大寒) 5일 뒤부터 입춘(立春) 3일전까지 약 일주일동안인 '신구간'은 지상의 인간사를 다루는 신(神)들이 한해의 임무를 마치고 새해 업무를 보고하기 위해 옥황상제에게 돌아간다는 제주지역 토속신앙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신구간에는 해코지 할 토속신이 없기에 이사하기 좋은 날(손 없는 날)이 된다. 집을 옮길 계획이 있는 주민들은 손이 없다는 이유로 '신구간'에 이사하고 있어 매년 이맘때면 곳곳에서 이삿짐 행렬을 구경할 수 있다.

타지사람들에게는 미신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때 제주도민의 15%가 이사를 할 정도여서 제주에 이주를 온 외지인은 집을 구하는데 애를 먹기도 한다.

황금낙하산

황금낙하산은 임원 등을 해임할 때 거액의 퇴직금을 주도록 하거나 주식을 싼 값에 사들일 수 있게 정관에 명시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어렵게 만드는 경영권 보호기법이다.

황금낙하산은 M&A로 회사의 경영진이 실직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계약으로서, 거액의 퇴직금, 저가에 의한 주식 매입권(Stock Option), 잔여임기 동안의 상여금 지급 등의 조건을 갖게 된다.

이러한 황금낙하산 규정은 직접적으로 경영자의 신분보장을 하는 것이 되는 동시에 매수 코스트를 인상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방어책으로서도 유효하다.

참고로 '주석(朱錫) 낙하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황금 낙하산과 같은 방법으로 인수·합병에 따라 종업원이 해고될 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는 방법이다.